

제54주년 6·25 참전용사 위로연 연설

존경하는 6·25 참전용사 여러분,

이상훈 재향군인회장과 군 원로 여러분,

6·25전쟁 54주년을 맞아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용사들의 희생을 기립니다. 그때의 상흔으로 아직도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멀리 해외에서 오신 참전용사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김선일 씨에 대한 살해 만행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었습니다. 테러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반인륜적인 테러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참전용사 여러분,

6·25전쟁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슬픔을 남겼습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고, 국토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1천만 이산가족의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또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민족이 공존공영하는 일, 이것이 6·25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는 굳건합니다.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어떠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동맹도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약화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쟁위기설로 치닫던 북핵문제도 지금 6자회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간 협력은 더욱더 본격화될 것입니다.

참전용사 여러분,

6·25전쟁과 남북분단이 남겨 놓은 휴전선 비무장지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열흘 전부터 선전방송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50여년간 반목과 대립을 부추기며 총성만큼 시끄럽게 울려대던 확성기가 철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고지, 고지에 평온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육지만이 아닙니다. 이 달 초 남북 양측은 서해상에서의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방지키로 합의하고, 이미 여러 조치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꽃게철만 되면 불안이 감돌던 서해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루아침에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 바쳐 지켜 주신 덕분입니다.

우리는 참전용사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참전용사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